

# 에셀나무(*Tamarix aphylla*)의 명칭문제에 대한 고찰\*

김영숙

대구가톨릭대학교 문화영성학과 외래교수

## An Investigation of Local Naming Issue of *Tamarix aphylla*

Kim, Young-Sook

Lecture, Department of Culture & Spirituality, Daegu Catholic University

### ABSTRACT

In order to investigate the issue with the proper name of eshel(*Tamarix aphylla*) mentioned in the Bible, analysis of morphological taxonomy features of plants, studies on the symbolism of the *Tamarix* genus, analysis of examples in Korean classics and Chinese classics, and studies on the problems found in translations of Korean, Chinese and Japanese Bibl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According to plant taxonomy, similar species of the *Tamarix* genus are differentiated by the leaf and flower, and because the size is very small about 2-4mm, it is difficult to differentiate by the naked eye. However, *T. aphylla* found in the plains of Israel and *T. chinensis* of China and Korea have distinctive differences in terms of the shape of the branch that droops and its blooming period.

The *Tamarix* genus is a very precious tree that was planted in royal courtyards of ancient Mesopotamia and the Han(漢) Dynasty of China, and in ancient Egypt, it was said to be a tree that gave life to the dead. In the Bible, it was used as a sign of the covenant that God was with Abraham, and it also symbolized the prophet Samuel and the court of Samuel.

When examining the example in Korean classics, the *Tamarix* genus was used as a common term in the Joseon Dynasty and it was often used as the medical term 'Chēngliǔ(檉柳)'. Meanwhile, the term 'wiseonglyu(渭城柳)' was used as a literary term. Upon researching the period and name of literature related to Chēngliǔ(檉柳) among Chinese medicinal herb books, a total of 16 terms were used and among these terms, the term Chuísīliǔ(垂絲柳) used in the Chinese Bible cannot be found. There was no word called 'wiseonglyu(渭城柳)' that originated from the poem by Wang Wei(699-759) of Tang(唐) Dynasty and in fact, the word 'halyu(河柳)' that was related to Zhou(周) China. But when investigating the academic terms of China currently used, the words Chuísīliǔ(垂絲柳) and Chēngliǔ(檉柳) are used equally, and therefore, it appears that the translation of eshel in the Chinese Bible as either Chuísīliǔ(垂絲柳) or Chēngliǔ(檉柳) both appear to be of no issue. There were errors translating tamarix into 'やなぎ(willow)' in the Meiji Testaments(舊新約全書 1887), and translated correctly 'ぎよりゅう(檉柳)' since the Colloquial Japanese Bible(口語譯 聖書 1955). However, there are claims that 'gyoryu(ぎよりゅう 檉柳)' is not an indigenous species but an exotics species in the Edo Period, so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terminology.

As apparent in the Korean classics examples analysis, there is high possibility that Korea's *T. chinensis* were grown in the Korean Peninsula for medicinal and gardening purposes. Therefore, the use of the medicinal term Chēngliǔ(檉柳) or literary term 'wiseonglyu' in the Korean Bible may not be a big issue. However, the term 'wiseonglyu' is used very rarely even in China and as this may be connected to the admiration of China and Chinese things by literary persons of the Joseon Dynasty, so the use of this term should be reviewed carefully. Therefore, rather than using terms that may be of issue in the Bible, it is more feasible to transliterate the Hebrew word and call it eshel.

*Key words:* Bible, Classical Database, Plant Classification, Tamarisk, *Tamarix aphylla*, *Tamarix Chinensis*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B5A07070969)

† **Corresponding Author** : Kim, Young-Sook, Dept. of Culture & Spirituality, Daegu Catholic University, Gyeongsan-si 38430 South Korea, Tel.: +82-10-4924-1150, E-mail: clara1011@cu.ac.kr

## 국문초록

성경에 쓰인 에셀나무(*Tamarix aphylla*)의 올바른 명칭문제를 고찰하기 위해서 식물의 형태분류학적인 특성 분석, *Tamarix*속에 대한 상징성 고찰, 한국고전과 중국고전에서의 용례 분석, 그리고 한중일 성경에 나타난 에셀나무 번역상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고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식물분류학적으로 *Tamarix*속 유사종의 구별은 잎과 꽃의 형태로 구분하지만, 그 크기가 2-4mm 정도로 매우 작기 때문에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스라엘 광야에 분포하는 *T. aphylla*와 중국과 한국의 *T. chinensis*는 가지가 처지는 모양이나 개화기간에서 확연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Tamarix*속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한(漢)나라에서는 궁궐 안뜰에 심을 정도로 귀한 나무였고, 고대 이집트에서는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로 여겼다. 또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느님께서 함께하심을 드러내는 계약의 표지로, 예언자 사무엘을 상징하기도 하고 사무엘의 법정을 상징하였다.

한국고전 용례를 통해서 볼 때 *Tamarix*속은 이미 조선시대에 일반화된 용어로 쓰였는데 ‘정류(檉柳)’는 의학적 용어로 많이 쓰인 반면에, ‘위성류(渭城柳)’는 문학적 용어로 쓰였다. 중국의 본초서 가운데 정류(檉柳)와 관련된 문헌들의 연대와 명칭을 고증한 결과에 의하면 모두 16개 용어가 쓰였는데, 이 용어들 가운데 중국 성경에 쓰였던 ‘수사류(垂絲柳)’라는 단어는 없었다. 또한 당나라 왕유(王維 699-759)의 시 때문에 생겨난 ‘渭城柳’라는 단어도 없었고, 오히려 주나라와 관계있는 ‘河柳’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국의 학술용어를 조사해 보면 ‘垂絲柳’와 ‘檉柳’가 대등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중국성경에서 에셀에 관한 번역은 ‘垂絲柳’로 하던지 ‘檉柳’로 하던지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일본성경은 명치역 『舊新約全書(1887)』에서 ‘야나즈(버드나무)’로 번역하는 오류가 있었는데, 『口語譯 聖書(1955)』부터 ‘ぎょりゅう(檉柳)’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ぎょりゅう(檉柳)’는 야생종이 아니라 에도시대 도입종이라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용어 설정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고전 용례분석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한국의 *T. chinensis*는 약용 및 관상용으로 일찍부터 한반도에서 생육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한국 성경에서 의약학 용어인 ‘檉柳’ 사용하거나 혹은 문학적 용어인 ‘위성류’를 사용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위성류’라는 용어는 중국에서조차 사용빈도가 극히 낮은 용어이고, 조선시대 문학하던 분들의 모화사상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 용어 사용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논란이 있는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히브리어로 음역하여 ‘에셀나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제어: *Tamarix aphylla*, *Tamarix Chinensis*, 성경, 식물분류, 에셀나무, 위성류

## 1. 서론

*Tamarix*속 에셀나무는 이스라엘 광야에서 물이 없는 환경에서도 생존하며, 뿌리를 땅속 30m까지도 뻗어서 지하수를 흡수하는 능력도 있고 가지들도 밀생하기 때문에 사막에서 좋은 그늘을 만들어 준다. 대개는 3-4m의 관목이나, 9m까지 교목으로 자라는 것도 있다. 에셀나무는 잎에 소금샘이 있어 짜고 그 짙은 성분은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해서 새벽녘에 이슬을 맺는다. 새벽녘에 내린 에셀나무의 이슬은 해가 뜨면 증발하게 된다. 그래서 한낮의 뜨거운 광야에서도 그늘과 증발열로 인해 에셀나무 밑의 그늘은 주변보다 최소 10도 정도 시원한 온도를 유지한다[1][2]. *Tamarix*속(에셀나무, 위성류)은 지중해 연안에서부터 아시아에 걸쳐 건조지대에 약 75종이 분포되어 있으며[3][4], 지중해 연안에는 10여종이 생육하고 있다.

*Tamarix*속에 대해서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유다 등의 국가에서 사후 세계나 영적인 가치를 지닌 식물로 여겨졌으

며[5], 약용식물과 조경에 널리 사용되었다[6]. 서양정원사에서는 위성류에 대해서 고대 이집트 정원의 식물로 멘투호텔 2세의 장제전에 돌무화과나무와 함께 심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투트모시스 1세 시대의 식물목록(*T. nilotica* 또는 *T. aphylla*)에도 나온다. 우르의 왕묘 정원에도 심었다고 기록되고 있어 [6] 중요한 조경식물 가운데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한국고전DB를 통해서 분석해 보면 우리 고전에서도 ‘정류(위성류)’는 비교적 다양한 용어로 쓰였는데, 정약용이 쓴 여유당전서(1938)를 비롯해서 43개 문헌에서 59차례 검색된다. 그런데 한국에서 선행연구를 보면, 상류전통주택인 구례 운조루에서 위성류를 계마수로 사용했다는 논문[7][8], 시화호 주변 위성류의 생육환경을 조사하여 자생적으로 자연군락을 이룬 것으로 밝힌 논문[9], 위성류가 해안지역 조경용 수목으로 적합성을 밝힌 논문[10]들이 있다. 그 반면에 중국에서는 정류의 연구역사[11] 서하류(西河柳)의 기원과 명칭 고증[12], 정류의 연구 성과 및 진행[4], 화석을 근거로한 정류의 지리적 분포에 관한 연구[13]들이 있다. 한편 서구에서는 *Tamarix*속에 대한

연구는 성서식물학자 Zohary(1982), Hepper(1998: 1992)의 연구를 밑바탕으로[14][15][16], 최근 Gaskin and Schaal (2002)이 미국 서부지방에서 *Tamarix*의 중간잡종이 널리 퍼져있었음을 밝혔다[17]. 한편 Maldonado *et al.*(2016)은 유럽에서 *Tamarix*의 분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18]. 'Flora of North America'[19]사이트와 이스라엘의 'Wild flowers of Israel'를 비롯한 여러 사이트[20]에서 *Tamarix*속의 분류와 분포에 관한 자료수집이 가능하다. 성경식물 가운데 명칭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식물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종려나무와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대추야자나무[21]와 여과없이 번역되어진 일본식 나무이름 도금양[22]에 대한 사례 연구가 있었다.

*T. aphylla*는 국가표준식물목록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T. chinensis*는 재배식물로 위성류로 표기하고 있다. *Tamarix*를 '위성류'라는 용어로 사용하였다[3][6][23]. 한편 Ryu(2014)는 '에셀나무'라고 하였으며[24], Jung(2013)은 '에셀나무(위성류)'로 쓰고 있고[25], Kwon(2015)는 '위성류(*Tamarisk*, 에셀나무)'로[26], Lee(1994)는 '민위성류'라고 하여[27] 학자들마다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 aphylla*의 올바른 명칭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중일 고문헌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실을 밝히고, 어떠한 명칭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 II. 연구방법

에셀나무(*Tamarix aphylla*)의 명칭문제를 고찰하기 위해서 3단계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1단계로 *Tamarix*속에 대한 식물 형태분류학적인 특징 분석을 통해 유사종을 구분하기 위한 근거를 찾았다. 그러나 *Tamarix*속에 모든 종에 대한 분석을 할 수는 없으므로, 대표종으로 성경에서 제시되는 *T. aphylla*와 위성류라고 불리워지는 *T. chinensis*, *T. chinensis*와 가장 유사한 *T. ramosissima*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단계로 *Tamarix*속의 상징성은 문헌조사를 통해서 *Tamarix*속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유다, 그리고 성경에서의 상징성을 고찰하였다. 3단계로 한중 고전용례분석과 한중일 성경 번역사에 나타난 에셀나무의 명칭 변화에 대한 분석을 해 봄으로써 에셀나무의 올바른 명칭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성경은 시기별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馬殊曼·拉沙『新舊遺詔全書(1822)[28]』, 馬禮遜·米憐譯『神天聖書(1823)[29]』, 四人小組譯本『舊遺詔全書(1840)[30]』, 위판역본(대표본)『新舊約全書(1855)[31]』, 裨治文·克陞存譯『舊新約全書(1863)[32]』, 施約瑟譯『新舊約聖經(1913)[33]』, 文理和合譯本『新舊約全書(1919)[34]』, 思高譯本『新舊約全書(1968)[35]』, 『現代中文譯本 聖經(1995)[36]』 등 9종의 성경을 분석대상으

로 삼았다. 일본성경도 시기별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裨治文·克陞存譯의 『舊約全書(漢譯聖書 1863)[37]』, 『訓點新舊約全書(1885)[38]』, 明治元譯『旧新約聖書(1904)[39]』, 口語譯『旧約聖書(1955)[40]』, 新共同譯『聖書(1987)[41]』 5종의 성경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한국의 성경은 『鮮漢文 貫珠 聖經全書(1926)[42]』, 『성경전서(1930)[43]』, 『성경전서 개역한글판(1938)[44]』, 『공동번역 성서(1977)[45]』, 『성경전서 표준새번역(1993)[46]』, 『성경전서 개역개정판(1998)[47]』, 『성경(2005)[48]』 7종의 성경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한국 고문헌 분석으로는 한국고전종합DB[49], 한의학교전DB[50], 한국사데이터베이스[51]를 활용하여 43개의 문헌을 검색<sup>1)</sup>하였으며, 중국의 본초서 관련 논문과 용어는 中國知网[52]과 百度學術[53]을 통하여 검색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에셀나무의 식물 형태분류학적 특징과 유사종

우선 'Tamaricaceae' family를 Lee(1994)는 '위성류科'로 표기한 반면에[52], Kim(2002)은 '위성류科(檉柳科)'로 병기해서 표기한 점이 눈에 띈다[3]. 중국과 일본에서는 학술적으로 '檉柳科, 檉柳屬'이라고 쓰기 때문에 병기해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Tamaricaceae family에는 4속 100종이 있으며, *Tamarix*(위성류속, 檉柳屬)에는 약 75종이 유럽 동아시아지역에 주로 분포하며[3], 중국에는 18종이 분포한다[53]. 이스라엘에 분포하는 *Tamarix*속은 약 10여종인 것으로 파악된다[20]. 이 가운데 성경에 나타나는 에셀나무에 대해서 식물학자 Zohary(1982), Hepper(1998: 1992), Lee(1994) 모두 *Tamarix aphylla*로 동정<sup>2)</sup>하고 있다[14][15][16][27].

*Tamarix*속 유사종의 식별법은 잎의 형태와 꽃의 형태로 구분하는데, *Tamarix*속은 잎과 꽃의 길이가 2-4mm 정도로 작고 중간 잡종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17][56]에 종 구별에서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데, 특히 *T. canariensis*, *T. chinensis*, *T. gallica* 및 *T. ramosissima*에서 그러하다[57]. 이 가운데 성경의 에셀나무로 동정이 되어지는 *T. aphylla*와 한국의 *T. chinensis*, 여기에 덧붙여 *T. chinensis*와 가장 유사종인 *T. ramosissima*에 대한 검색표[55]를 재구성하면 Table 1과 같다.

*Tamarix*속 에셀나무인 *T. aphylla*와 여타 종간 구분은 잎으로 할 수 있다. *T. aphylla*는 잎의 길이 2-4mm 정도로 아주 짧은데, 엽신이 없고 엽병이 가지를 둘러싼 엽초(葉鞘 vaginate)로 되어 있어 마치 잎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무엽정류(無葉檉柳)라고 한다. 여기에 비해 중국과 한국의 *T. chinensis*의 가지들은 가늘고 부드러운 축 늘어지며, 잎은 난피침

Table 1. A checklist of *Tamarix* Species[55]

1a. Leaves reduced, totally amplexicaul and vaginate on branches of current year.....	<i>T. aphylla</i>
1b. Leaves not amplexicaul, nor vaginate.	
12a. Flowers blooming in spring, then also in summer and autumn (blooming 2 or 3 times).	
15b. Petals slightly open, nearly straight and ascending, apically often recurved, and corolla not globose.	
16a. Branches soft, slender, long, pendulous: young branches with deep green leaves, slender, pendulous: leaves subulate to ovate-lanceolate, apex acuminate, incurved.....	<i>T. chinensis</i>
12b. Flowers blooming only in summer or autumn.	
17b. Young branches and leaves glabrous or sparsely papillose.	
18a. Petals persistent after anthesis.	
19a. Petals straight, ascending, contacting each other, corolla cup-shaped.....	<i>T. ramosissima</i>

형(披針) 모양인데 엽정(葉頂)이 점점두라서 송곳처럼 뾰족하다. 에셀나무인 *T. aphylla*의 꽃은 7-11월에 분홍색에 가까운 희고 자잘한 것들이 모여 총상화서(racemes)로 둥그스럼한 종 모양인데 꽃잎은 뒤로 휘지 않는다. 여기에 비해 한국의 *T. chinensis*의 꽃은 봄 여름 가을 2-3차례 피고, 꽃이 지더라도 결실단계까지 존속하기 때문에 일년 내내 피는 것처럼 보인다. 개화시 꽃잎은 조금 더 열리지만, 거의 곧바르거나 올라가다가 꽃잎 상단부(apically)은 밖으로 젖혀진다.

식물분류학적으로 *Tamarix*속의 유사종의 구별은 잎과 꽃의 형태로 구분하지만, *Tamarix*속은 잎과 꽃의 길이가 2-4mm 정도로 매우 작기 때문에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스라엘 광야에 분포하는 에셀나무인 *T. aphylla*와 중국과 한국의 *T. chinensis*는 가지가 처지는 모양이나 개화기간에서 확연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 2. *Tamarix*속의 상징성

### 1) 고대 메소포타미아

수메르의 왕도였던 우르에서는 유프라테스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 성벽을 쌓고 과수와 채소를 재배했다는 기록과 함께 왕의 궁정 안뜰에는 대추야자와 위성류를 심고 그 그늘 아래에서 연회를 베풀었다[6]고 전해진다.

### 2) 고대 이집트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하늘의 신 누트(Nut)가 tamarisk의 영역 안에서만 죽은 파라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고 믿었다. 플루타르크의 주장에 의하면 이집트인들은 사후세계의 통치자인 오시리스의 무덤위에 tamarisk가 심겨져 그림자를 드리워져야 한다고 믿었다[5]. 이러한 내용들은 파라오의 관에 주술문으로서 기록되어 있다. 플루타르크는 무덤위에 tamarisk가 심겨지는 모델도 있었지만 또 다른 모델로 무덤 옆에 tamarisk가 심겨지는 모델도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집트 나일강 중상류에 소재한 덴데라(Dendera)에 있는 하토르(Hathor) 신전의 동

쪽에 있는 오시리스(Osiris) 경당의 부조 그림에는 tamarisk가 파라오의 시신 옆에 그려져 있다. Figure 1에는 매장된 파라오의 침상 곁에 tamarisk가 심겨져 있고 오시리스(Osiris)의 영혼의 새가 쉬고 있는 그림을 볼 수 있다.

또한 tamarisk가 죽은 파라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무덤에 심겨졌던 사례도 발굴되었다(Figure 2). 이집트 19왕조 시대에 조성되었던 세티(Seti) 1세의 오시레이온(Osireion) 신전의 유적은 전체 유적이 지표면 아래 지하로 내려가 있는데, tamarisk를 심기 위해 무려 15m 깊이의 큰 식재용 구덩이를 6개소나 굴착했던 것이 발굴되었다. 이와 같이 tamarisk를 심으면 나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영역 안에서 놓여진 파라오 시신은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사례가 되고 있다.

### 3) 유다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함께 계셨으므로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에서도 안전하게 지내면서 아비멜렉 임금으로부터 서로 호의를 베풀 것을 요청받는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와 일곱 암양 새끼를 주어 자기가 판 우물에 대하여 증거의 표를 삼고, 소유권을 확실히 했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브에르 세바라 불렀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기념해서 사막성 토질에서 잘 자라는 에셀나무를 심었다(창세 21,33)<sup>3)</sup>. 브에르 세바에 있는 '아브라함 우물'에는 지금도 에셀나무들이 자라고 있다.

사울은 다윗을 붙잡기 위해 기브아의 높은 지대에 있는 에셀나무 아래에서 참모회의를 개최하였으나(1사무 22,6)<sup>4)</sup>,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에셀나무<sup>5)</sup> 아래 매장된 사울의 유골(1사무 31,13)<sup>6)</sup>을 찾아와 정식으로 장사해 주었다(2사무 21, 12-14).

### 4) 성경에 나타난 에셀나무(*Tamarix aphylla*)의 상징성[1]

아브라함은 브에르세바에 왜 에셀나무를 심었을까? 아브라함은 브에르세바에 도착하여 오랫동안 머물면서 아무 나무나 심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브라함은 과일나무를 선택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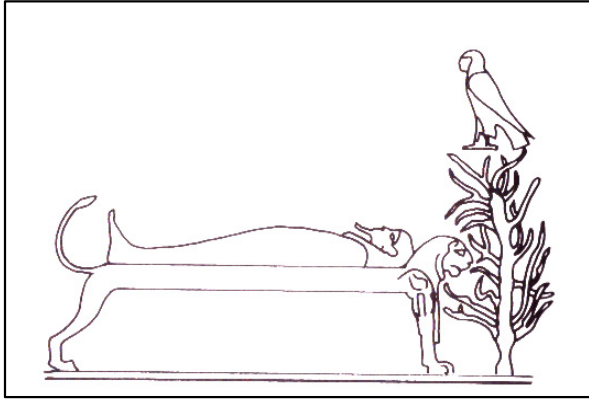


Figure 1. A Relief-Carving in the Temple of Hathor at Dendera[5].



Figure 2. A View into the Osireion at Abydos. Reign of Seti I. XIXth Dynasty[5].

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더 시원한 나무를 선택했다. 에셀나무는 지하수를 찾기 위해 그 뿌리를 깊은 땅아래로 뻗어서 더위과 긴 가뭄에 견딜 수 있는 나무이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식욕을 채워주는 물적인 과일나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시원한 그늘에서 영원하신 하느님께서 함께하심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그늘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어떤 영적인 무엇을 채워 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히브리어의 언어유희'라는 관점에서 보면, "Ask what you will(שאל מה תשאל)"에서 sh'al(Ask)의 첫 두글자를 반전시키면 tamarisk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eshel이 된다. 그러므로 히브리어 언어유희로는 '요청하다'는 의미와 '에셀나무'라는 의미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상징적으로 '현인(賢人)'들을 'great tamarisk'이라고 불렀으며, 마지막 예언자 사무엘은 '라마의 great tamarisk'로 불리워졌다. 탈무드(Yebamot 77a and Baba Kama 6la)에서 여러 번 언급되는 '라마의 사무엘의 법정'이라는 용어는 '라마에 있는 에셀나무'와 상징적으로 서로 통한다. 그래서 '라마에 있는 에셀나무'는 사무엘을 상징하기도 하고 사무엘의 법정을 상징하기도 한다. 사무엘은 에셀나무가 있는 기브아에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추대하게 된다.

에셀나무는 해안지역과 네게브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에셀나무가 산 위에 위치한 마을 기브아나 라마<sup>7)</sup>에서 자란다는 것은 천연적인 서식처와 거리가 먼 것이다. 에셀나무와 같이 물을 필요로 하는 나무는 산 위에서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적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나 사무엘이 에셀나무를 선택한 이유는 에셀나무들의 이례적인 존재가 먼거리에서도 이 장소를 즉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사무엘, 사울, 드보라와 같은 지도자들은 자신이 부여받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별되는 장소로 에셀나무가 심겨진 곳을 선택하였다는 것이다.

### 3. 한국고전과 중국고전에서 의 용례 분석

#### 1) 한국과 중국에서 Tamarix속의 여러 측면 고찰

삼국사기에 의하면 설총은 구경(九經)을 가르쳤다고 하고, 외교문장가 강수(强首)는 효경(孝經), 곡례(曲禮), 이아(爾雅), 문선(文選)을 읽었다는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이미 삼국시대부터 중국의 유명한 서적들이 읽혀졌음을 알 수 있다[58]. 그 가운데에도 「이아(爾雅)」를 공부하였다는 것은 사물에 대한 정확한 자기해석이 가능했음을 알 수 있고, 실제 「이아(爾雅)」에는 "檉 河柳也<sup>8)</sup>"라는 기록이 있다. 당나라 739년 진장기(陳藏器)가 쓴 「本草拾遺(본초습유)」에는 赤檉木(적정목)이라는 기록이 있다[12].

한국 고대인이 알고 있었던 약물지식이 교역이나 전쟁을 통해서 중국에 알려졌으며[59], 이것이 중국 고대 「신농본초서」에 채록된 뒤 다시 한국 고대사회에 수용되었음을 밝힌 연구가 있다[57]. 또한 중국의 34종에 달하는 본초서 문헌에 우리나라의 본초 69종이 기록되어 있음이 밝혀졌다[58]. 이러한 연구 결과를 두고 볼 때 이미 삼국시대에 한중 의학교류가 매우 활발했으며, 이에 따라 '정류'가 약재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Baum(1978)의 연구에 의하면 *T. ramosissima*종은 터키에서부터 한국까지 분포하고, *T. chinensis*종은 중국 서부에서부터 일본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도 간과 할 수 없는 사실이다[4][57]. 또한 김경선(金景善 1788-1853)이 청나라를 다녀오면서 쓴 기록문 「연원직지(燕巔直指)」을 보면 '압록강으로부터 삼백리 되는 지점인 석문령(石門嶺)까지 길가나 마을 앞에 심은 것은 오직 정류뿐이다(路傍及村前所植之木 惟檉柳而已)'라는 기록을 남겼는데, 이 기록은 한반도 주변의 정류의 분포를 알려주는 중요한 기록이다. 또한 동의보감에 의하면 허균이 동의보감을 집필하던 당시에 이미 적류(今河邊小楊莖赤葉細 所謂赤柳)가 하천변에 자라고 있다는 기록도[60] 정

류의 분포를 알려주는 중요한 기록이다.

지금까지 각종 식물도감이나 서적[61]에서 위성류는 ‘중국 원산종’이 도입된 것이라는 기록이 많다. 그러나 지금 검토한 것과 같이 고대부터 의학교류가 매우 활발했으며, 중국본초서 문헌에 우리나라 본초가 매우 많이 기록된 점, 동의보감[60]의 기록, *Tamarix*의 분포 연구 결과[4][57], 「연원직지(燕輶直指)」의 기록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한반도에서 *Tamarix*는 ‘중국 원산 도입종’이라고 표기하기 보다는, 정부공식사이트인 BRIS(생명자원정보서비스)[62]에서 표기 한 것과 같이 ‘야생종’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2) 한국고전 용례 분석

그러면 한국고전에서 위성류(渭城柳)에 대해 어떤 용어로 기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고전종합DB[47], 한의학교전DB[4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49]를 검색하였다. 한국고전에서는 *Tamarix*속 관련 용어들이 다양하였기 때문에 키워드는 “檉柳, 渭城柳, 垂絲柳, 西河柳, 菱殊柳, 赤檉木”를 사용하여 검색하였다.

우선 ‘정류(檉柳)’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초기 성현(1439-1504)의 허백당집(虛白堂集)에서부터 조선 후기 황도연(1808-1884)의 의종손익(醫宗損益)에 이르기까지 19종의 문집에서 23회의 ‘檉柳’ 기록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檉柳’의 기록은 이시진이 쓴 본초강목에 상세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본초강목의 내용을 소개하는 조선시대 문헌에서도 ‘檉柳’라는 기록이 자동적으로 많아졌다. 즉 이만부(1664-1732)의 식산집(息山集)의 내용<sup>9)</sup>을 비롯하여, 이규경(1788-1863)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sup>10)</sup>, 최한기(1803-1877)의 농정회요(農政會要), 이창우(1929)의 수세비결(壽世秘訣), 저자와 출판연도가 미상인 의방합부(意方合部)에 이르기까지 의학적적용을 비롯하여 농정서와 문집까지 인용되고 있다. 또한 정조 24년(1800년) 6월 1일 일성록에 의하면 수원(留守)의 유수(留守)가 금년에 버드나무(楊), 정류(檉), 뽕나무(桑), 산뽕나무(柘), 개암나무(榛), 밤나

무(栗) 등을 넓은 지역에 심어 숲을 만들 계획(今年種以樹木無論楊檉桑柘榛栗廣植而成林)을 보고한 기록을 보더라도 정류가 일반화된 수종 및 용어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渭城柳(위성류)’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초기 서거정(1420-1488)의 사가집(四佳集)에서부터 조선 후기 허훈(1836-1907)의 방산집(舫山集)에 이르기까지 22종의 문집에서 24회의 ‘渭城柳’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위성류에 대한 기록은 여러 문헌에서 시 제목이나 시의 내용에서 언급된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성류에 대한 특별한 기록들도 찾을 수 있는데, 강희맹(1424-1483)의 사숙재집(私淑齋集)에서는 위성류를 친지로부터 가지를 얻어와 삼목해서 심었으며, 송시열(1607-1689)의 송자대전(宋子大全)에서는 작은 집을 짓고 위성류 수십 그루를 심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유의건(1687-1760)의 화계집(花溪集)과 남유상(1696-1728)의 태화자고(太華子稿)에서는 정자 건물 주위에 위성류를 식재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제택, 정자, 별서에 위성류를 많이 심은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는데, 그 까닭은 이시항(1672-1736)의 화은집(和隱集)을 통해서 볼 때 위성류가 ‘군자은일의 상징목’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삼목으로 쉽게 번식이 가능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실례로 유이주의 제택 구례 운조루의 사랑채 앞 마당에도 위성류가 식재되어 있다[7].

‘서하류(西河柳)’라는 용어는 정약용(1762-1836)의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마과회통에서만 7회 나타나며, ‘능수류(菱殊柳)’는 여유당전서에서만 1회 나타나며, ‘적정목(赤檉木)’은 양예수(楊禮壽 ?-1597)의 의림촬요(醫林撮要)에서만 나타난다.

일제강점기가 되면, 森爲三(모리다메조 1922)가 저술한 서적에서는 Tamaricaceae를 檉柳科(ギョリウ科)로 표기하고 [63], *T. chinensis* Loureiro를 “ギョリウ, 檉柳, 菩薩柳(보살류), 三春柳, 위성유”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인 鄭台鉉(1937)이 저술한 서적에서는 Tamaricaceae를 위성류科(檉柳科)로 표기하고 *T. chinensis* Loureiro를 “ギョリウ, 檉柳”로 적고 있다[64]. Tamaricaceae 과명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본학

Table 2. An Analysis of Related Examples of *Tamarix*(檉) in Korean Old Literatures

	A / B	Related Old Literatures
檉柳	23 / 19	1. 虛白堂集, 2. 澤堂集, 3. 息山集, 4. 杞園集, 5. 西州集, 6. 鶴阜集, 7. 藥軒遺集, 8. 凌壺集, 9. 日省錄, 10. 海藏集, 11. 阮堂全集, 12. 嘉梧藥略, 13. 燕輶直指, 14. 五洲衍文長箋散稿, 15. 農政會要, 16. 眉山集, 17. 壽世秘訣, 18. 意方合部, 19. 醫宗損益
渭城柳	24 / 22	1. 四佳集, 2. 私淑齋集, 3. 於于集, 4. 拙翁集, 5. 玄洲集, 6. 竹陰集, 7. 白江集, 8. 東溟集, 9. 宋子大全, 10. 息山集, 11. 屏谷集, 12. 和隱集, 13. 觀水齋遺稿, 14. 花溪集, 15. 太華子稿, 16. 雷淵集, 17. 石北集, 18. 海左集, 19. 與猶堂全書, 20. 逸圃集, 21. 至樂齋遺稿, 22. 舫山集
垂絲柳	3 / 3	1. 約齋集, 2. 太乙菴集, 3. 醫宗損益
西河柳	7 / 1	與猶堂全書 麻科會通
菱殊柳	1 / 1	與猶堂全書
赤檉木	1 / 1	醫林撮要
total	59 / 43	

\* A : Number of cases, B: Number of literatures(Except for duplicates)



자는 ‘檉柳科’가 앞서 있고 한국학자는 ‘위성류’가 앞서 있음이 흥미롭다.

이와 같은 한국고전 용례를 종합해 볼 때 *Tamarix*속은 이미 조선시대에 일반화된 용어로 쓰였는데 ‘정류(檉柳)’는 의학적인 용어로 많이 쓰인 반면에, ‘위성류’는 시문에 쓰이는 문학적 용어인 동시에, 군자를 상징하는 정원 관상용 용어임을 알 수 있다.

### 3) 중국고전 용례 분석

중국에서 식물에 대한 종합적인 기록은 BC 3-11세기경의 시경(詩經)이 가장 앞서는데, 시경에 기록된 식물명칭은 총 136종이다[65]. 그러나 시경에 ‘檉’에 관한 기록은 없다. 그런데 원 시시대로부터 축적되어온 본초학(本草學)적 지식은 서기 1세기경에 『신농본초경(新農本草經)』으로 집대성 된다[12]. 본초학 서적들 가운데 연대가 가장 빠른 것이 『신농본초경』으로 이 책은 『本經』, 『本草經』, 혹은 『新農本經』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앞에 ‘신농’을 붙인 것은 이 책의 존귀함[66]과 역사성을 강조하여 표현하기 위함이었다. 『신농본초경』에는 음양오행설의 영향으로 365종의 약물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식물이 252종, 동물이 67종, 광물이 46종이다[12]. 이 책은 약물의 효능의 차이에 따라서 상, 중, 하의 3經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신농본초경』에서는 정류(檉柳)와 기류(杞柳)는 같은 명칭으로 전제하면서, 3권 하경(下經) 유화(柳花)조에서는 『說文』, 『爾雅』, 『左傳』, 『毛詩』와 같은 진한(秦漢)시대 서적들의 내용과 곽박(郭璞 276-324)과 명의(名醫)의 의견들을 종합하여 집필되었다. 『신농본초경』의 유화(柳花)조 내용에는 유화(柳花) 버드나무류(柳花)를 유서(柳絮), 소양(小楊), 정(檉), 하류(河柳), 양목(楊木), 모택류(旄澤柳), 포류(蒲柳), 기류(杞柳)들과 함께 구분없이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버드나무류(柳花)들의 잎은 말(馬)로 인해 생긴 상처의 치료에 쓰이고, 열매는 주로 약성종기나 피고름 치료에 쓰인다<sup>11)</sup>고 하였다.

명나라 이시진(1518-1593)은 『본초강목』에서 정류(檉柳)를 기술할 때, 『唐本草』, 『신농본초경』, 유한(劉翰, 919-990)이 편찬한 『개보(開寶)』, 그리고 나원(羅願 1136-1184)이 편찬한 『이아익(爾雅翼)』 등의 서적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우선 『본초강목』의 내용적 특징을 보면, 『신농본초경』에서는 버드나무류(柳花)가 모두 치료제로 쓰이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본초강목』에서는 특정한 나무, 즉 정류(檉柳)가 말에 물려 생긴 상처에 쓰인다(檉柳剝驢馬毒血入內 浸汁服)고 한정하고 있다.

본초강목(本草綱目)에 의하면, 우선 중국 최초로 진한(秦漢)시대에 쓰여진 의학 전문서적인 『본경(本經)』에 양류(楊柳) 버드나무, 포류(蒲柳, 홍포류), 기류(杞柳, 개키버들)<sup>12)</sup>과 함께

정류(檉柳) 위성류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류가 외관상 버드나무류와 비슷한 수목 같지만 학명으로 보면 과(科)가 전혀 다른 식물이다. 또한 이시진은 송나라 나원(羅願 1136-1184)이 사물의 이름을 해석한 『이아익(爾雅翼)』을 인용하면서, 정류(檉)는 비가 오려고 할 때 가지에 물방울이 맺혀 비가 올 것을 먼저 알기 때문에 성스러운 나무라고 하였다. 그래서 성스러운 성(聖)자에 나무 목(木)자를 붙여 정(檉)자를 만든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류를 비를 만드는 신 우사(雨師)라고도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비를 맞으면 실처럼 늘어지니 우사(雨絲)로 써야 한다고도 하였다. 한(漢)나라 때의 궁궐에 대한 기록인 『삼보고사(三輔故事)』에 의하면 한나라 무제(武帝) 때 정원에 류(柳)가 있었는데, 수형이 사람과 같아서 ‘인류(人柳)’라고도 하였는데, ‘하루에 세 번 일어나고 세 번 잔다’고 하였다. 정류의 성스러운 때문에 ‘장수하는 신선’을 닮은 버드나무라는 뜻을 가진 ‘장수선인류(長壽仙人柳)’라고도 하였고, 관음보살이 정류 가지를 사용하여 물을 뿌렸다고 ‘관음류(觀音柳)’라고도 하였다고 본초강목에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T. chinensis*는 중국 고대부터 신성한 나무로 여겨졌으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워졌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중국본초서를 통해 정류의 다양한 명칭의 용례를 시대별, 문헌별로 재정리 해 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그 결과는 모두 16가지로 - 檉柳(3), 赤檉木(3), 河柳(3), 長壽仙人柳(2), 西河柳(1), 赤楊(1), 赤白檉(1), 謂檉柳(1), 蜀柳(1), 人柳(1), 觀音柳(1), 春柳(1), 三春柳(1), 樓落(1), 雨師(1), 雨絲(1) - 요약할 수 있다<sup>13)</sup>. 즉, 정류(3), 적정류(3), 하류(3)나 서하류(1)라는 용어가 많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중국 성경에 쓰였던 ‘수사류(垂絲柳)’라는 단어는 본초서에서는 쓰이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당나라 왕유(王維 699-759)의 『송원이사안서(送元二使安西)』라는 시 때문에 생겨난 ‘위성류(渭城柳)’라는 단어가 없었고, 오히려 시대가 주나라로 거슬러 올라가는 용어인 ‘하류(河柳)’와 ‘서하류(西河柳)’가 많이 쓰이고 있음이 특징이다.

### 4. 한중일 성경에 나타난 에셀나무(*Tamarix aphylla*)의 번역상 혼란성과 제언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에셀나무(*T. aphylla*)는 고대부터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던 수목이다. 특히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심었던 나무로 현지들을 지칭하기도 하는 유대인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수목이었다. 그러나 ‘에셀나무(*T. aphylla*)’는 동아시아지방에서 자생하지 않는 수목이다. 따라서 *T. aphylla*의 정확한 번역 용어를 찾기 위해서는 시기별로 어떻게 번역해 왔는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Table 3. An Analysis of Terminology Usage in the Chinese Literature

Chinese literature	Author(Era)	Terminology usage
三輔故事	(B.C. 206-220)	人柳, 檉柳, 長壽仙人柳, 觀音柳
爾雅	(the 2nd century B.C.)	河柳
說文解字	許慎(98 AD)	河柳
新農本草經	(the first century AD)	檉杞同称
古今注	崔豹(晋朝 266-420)	赤楊
本草拾遺	陳藏器(739)	赤檉木
西陽雜俎	段成式(803-863)	赤白檉
本草圖經	蘇頌(1020-1101)	赤檉木, 謂檉柳, 春柳
本草衍義	寇宗奭(1116)	赤檉木, 三春柳
通志	鄭樵(1104-1162)	檉落
爾雅翼	羅願(1136-1184)	雨師, 雨絲
履巉岩本草	王介繪(1220)	長壽仙人柳
王禎農書	王禎(1313)	河柳
本草綱目	李時珍(1590)	檉柳, 蜀柳
本草匯言	倪朱謨(1624)	檉柳, 西河柳
* 送元二使安西	王維(699-759)	* 渭城柳

Table 4. A Translation of 𣎵 in Chinese Old Testament Bible

		Gen 21,33	1Sam 22,6	1Sam 31,13
		𣎵	𣎵	𣎵
馬殊曼·拉沙譯 舊遺詔全書	1822	植一叢??	樹	一株樹
馬禮遜·米憐譯 神天聖書	1823	栽種??	樹林	一樹
四人小組譯本 舊遺詔聖書	1840	樹林	垂絲柳	樹
委辦譯本(代表本)新舊約全書	1855	植林木	垂絲柳	樹
裨治文·克陸存譯 舊新約全書	1863	植林木	垂絲柳樹	垂絲柳樹
施約瑟譯 新舊約聖經	1913	植林	垂絲柳	垂絲柳
文理和合譯本 新舊約全書	1919	垂絲柳	垂絲柳	垂絲柳
思高譯本 新舊約全書	1968	檉柳	檉柳	檉柳
現代中文譯本 聖經	1992	垂絲柳樹	垂絲柳樹	垂絲柳樹

1) 중국 성경 분석

히브리어 𣎵(פסל)의 번역이 한중일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 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브에르 세바에 심 었던 나무를 나타내었던 창세 21,33과, 사울이 다윗을 붙잡기 위해 참모회의를 개최하였던 1사무 22,6, 그리고 사울의 유골이 묻혀 있던 1사무 31,13의 단어를 비교해 보았다.

중국어 성경에서 「舊遺詔全書(1822)」과 「神天聖書(1823)」에 서는 나무이름을 쓰지 않고 일반적인 나무를 통칭하는 '樹(수)' 로 번역하였다[28][29]. 이것은 히브리어 에셀을 어떤 나무로 번역할 것인지 아직 정확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사무 22,6는 「舊遺詔聖書(1840)」에서는 垂絲柳(수사류)[14] 로 쓰기 시작하였고[30], 1사무 31,13은 「舊新約全書(1863)」에 서부터[32], 창세 21,33은 文理和合譯本 「新舊約全書(1919)」에

서부터 垂絲柳로 번역하기 시작하였다[34]. 중국에서 가장 최 근에 속하는 사고역본 「聖經(1968)」에서는 '檉柳'을 쓰고 있는 반면에[35], 「現代中文 聖經(1995)」에서는 '垂絲柳樹'로 번역하 고 있기에[36] 어느 용어가 타당성을 갖는지 분석해 볼 필요성 이 있다.

중국식물지[67]와 Flora of China[55]에 의하면 *T. aphylla* 는 无叶檉柳(무엽정류), *T. chinensis*는 檉柳(정류)로 명칭을 부여하고 있지만, 垂絲柳(수사류)라는 용어는 중국에 생육하는 *Tamarix*속의 18종 가운데 정식 명칭을 부여받지 못하고 檉柳 (정류)의 또다른 이름으로만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히브리어 에셀을 번역함에 있어서 현대 중국에서 고 대 본초 의학적 근거가 깊은 '정류(檉柳)'를 사용하자는 주장 도 있을 수 있고, 중국의 식물분류학자들에 의해 정식 명칭으



로 부여 받지 못한 '수사류(垂絲柳)'를 쓰지말자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의 검색사이트 '百度學術' 사이트에서 1950년부터 2018년까지 '垂絲柳'와 '檉柳' 그리고 '渭城柳'에 관한 학술연구 논문 자료수를 검색해 보면 垂絲柳 2016건, 檉柳 2093건, 渭城柳 113건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검색 결과를 두고 볼 때 중국성경에서 에셀에 관한 번역은 수사류로 하던지 정류로 하던지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검색된 위성류의 113건 가운데에서 중국언어문학 쪽에서의 78건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학술 용어임을 알 수 있다.

단지 「現代中文 聖經(1995)」에서 '垂絲柳'가 아니고 '垂絲柳樹'인 점[36], 이미 '垂絲柳'만 하더라도 충분히 특정의 나무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垂絲柳樹'로 하여 중복표현을 하는 점은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 2) 일본 성경 분석

일본 성경의 경우는 중국 성경인 「舊新約全書(漢譯聖書 1863)」에 훈점(訓點)을 달아 쓰다가, 明治元譯 「舊新約全書(1887)」에서는 '柳(やなぎ)', 또는 '柳の樹(やなぎのき)'로 번역되었다. 1887년경에 일본에서도 에셀나무를 버드나무의 일종으로 판단한 것이다. 「聖書植物考(1975)」에서도 이와 같은 관점을 반영하여 '垂絲柳'라고 하였지만, 이것이 'しだれ柳'로 판단하여 'しだれやなぎ'(수양버들)로 하였던 것 같다고 적고 있다[45]. 일본에서는 버드나무(やなぎ)가 일반적으로 수양버

들(しだれやなぎ)을 의미한다.

버드나무(*Salix* 楊)과 정류(*Tamarix* 檉)는 서로科가 다른 식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口語譯 聖書(1955)」와 「新共同譯(1987)」에서는 'ぎよりゅう(檉柳)の木'로 번역하고 있다[40][41]. 'ぎよりゅう(檉柳)'만하더라도 충분하지만 중국의 '垂絲柳樹'와 마찬가지로 'ぎよりゅう(檉柳)の木'까지 붙여 중복 표현한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또한 일본의 검색사전사이트 Weblio辭典에 의하면 에도시대(1741-1744)에 중국 원산인 檉柳가 도래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68]. 따라서 일본에서의 'ぎよりゅう(檉柳)'는 자생종이나 야생종이 아니라 에도시대 도래한 외래종이라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용어 설정에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3) 한국 성경 분석

한국 성경에서 에셀나무는 「鮮漢文 貫珠 聖經全書(1926)」를 보면 창세기에는 '에셀樹'로 번역을 하고 사무엘서에서는 '垂楊柳樹'로 번역하는 혼란을 겪었다[42]. 특히 '垂楊柳樹'는 '수양 버드나무 + 버드나무'로 해석되는 괴이한 용어조합이다. 그러다가 「성경전서(1930)」와 「성경개역(1938)」에서는 일제강점기에도 불구하고 '에셀나무'로 제대로 번역이 잘되었다[43][44]. 그런데 「공동번역성서(1977)」에서는 같은 단어가 에셀나무, 석류나무, 위성류나무로 번역되는 혼란을 가져왔다[45]. 그러다가 「표준새번역(1993)」, 「개역개정판(2002)」, 「성경(2005)」에서는 모두 '에셀 나무'<sup>15)</sup>로 번역되고 있다[46][47][48]. 그

Table 5. A Translation of אֶשֶׁל in Japanese Old Testament Bible

		Gen 21,33	1Sam 22,6	1Sam 31,13
		אֶשֶׁל	אֶשֶׁל	אֶשֶׁל
神治文·克陸存譯 舊新約全書(漢譯聖書)	1863	植林木	垂絲柳樹	垂絲柳樹
訓點舊約全書	1885	植 <sup>エチ</sup> 林木	垂絲柳樹	垂絲柳樹
明治元譯 舊新約全書	1887	柳 やなぎ	柳の樹	柳樹 やなぎのき
口語譯 聖書	1955	ぎよりゅうの木	ぎよりゅうの木	ぎよりゅうの木
新共同譯	1987	ぎよりゅうの木	ぎよりゅうの木	ぎよりゅうの木

Table 6. A Translation of אֶשֶׁל in Korean Old Testament Bible

		Gen 21,33	1Sam 22,6	1Sam 31,13
		אֶשֶׁל	אֶשֶׁל	אֶשֶׁל
Korean Bible	1911	에셀나무	에셀나무	에셀나무
鮮漢文 貫珠 聖經全書	1926	에셀樹	垂楊柳樹	垂楊柳樹
The Holy Bible Korean Revised Version	1938	에셀나무	에셀나무	에셀나무
The Holy Bible Common Translation	1977	에셀 나무	석류나무	위성류나무
The Holy Bible New Korean Standard Version	1993	에셀 나무	에셀 나무	에셀 나무
The Holy Bible New Korean Revised Version	2002	에셀 나무	에셀 나무	에셀 나무
The Holy Bible	2005	에셀 나무	에셀 나무	에셀 나무

러나 띄어쓰지 않고 쓰는 것이 바른 표현이다.

히브리어 **טַמְרִי**에 대한 번역은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번역 되어야 한다. 예를들어 올리브나무는 중국에서 자라는 아주 비슷한 나무 감람나무가 있기 때문에 감람나무로 번역하더라도 문제가 없지만 한국에서 감람나무로 번역하는 것은 한국의 자생종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에셀나무(*T. aphylla*)는 중국에서는 자생종 檉柳(*T. chinensis*)가 있기 때문에 檉柳라고 번역해도 무관하지만, 사회에서 檉柳와 비슷한 중요도를 가진 垂絲柳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성경은 에도시대 중반에 도입된 종의 이름을 그대로 쓸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고전 용례분석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한국에서 *T. chinensis*는 약용 및 관상용으로 일찍부터 한반도에서 생육하였다. 그러므로 한국 성경에서 의학용어인 '檉柳' 사용하거나 혹은 문학적인 용어인 '위성류'를 사용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의학학적으로 역사성이 깊은 檉柳를 쓰자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그래도 인지도가 높은 위성류를 쓰자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위성류'라는 용어는 중국에서도 사용빈도가 극히 낮은 용어이고, 조선시대 문학하던 분들의 순박한 모화사상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 용어 사용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위성류를 가져와서 쓰기보다는 히브리어로 음역하여 에셀나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 IV. 결론

성경에 쓰인 에셀나무(*Tamarix aphylla*)의 올바른 명칭문제를 고찰하기 위해서 식물의 형태분류학적인 분석, *Tamarix*속에 대한 상징성 고찰, 한국고전과 중국고전에서 용례 분석, 한중일 성경에 나타난 에셀나무의 번역상 혼란성과 제언에 대한 고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물분류학적으로 *Tamarix*속 유사종의 구별은 잎과 꽃의 형태로 구분하지만, *Tamarix*속은 잎과 꽃의 길이가 2-4 mm 정도로 매우 작기 때문에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스라엘 광야에 분포하는 에셀나무인 *T. aphylla*와 중국과 한국의 야생종 *T. chinensis*는 가지가 처지는 모양이나 개화기간에서 확연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Tamarisk*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한(漢)나라에서는 궁궐 안뜰에 심을 정도로 귀한 나무이었고, 고대 이집트에서는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로 여겼다. 또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느님께서 함께하심을 드러내는 계약의 표지로, 예언자 사무엘을 상징하기도 하고 사무엘의 법정을 상징하였다.

셋째, 한국고전 용례를 통해서 볼 때 *Tamarix*속은 이미 조선시대에 일반화된 용어로 쓰였는데 '정류(檉柳)'는 의학적인 용어로 많이 쓰인 반면에, '위성류'는 시문에 많이 쓰이는 문학적인 용어인 동시에, 군자를 상징하는 정원 관상용 용어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중국의 본초서 가운데 정류(檉柳)의 다양한 명칭의 용례를 시대별, 문헌별로 재정리 해 본 결과 모두 16개 용어가 쓰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Tamarix*속 16개 용어들 가운데 중국 성경에 쓰였던 '수사류(垂絲柳)'라는 단어는 없었다. 또한 당나라 왕유(王維 699-759)의 시 때문에 생겨난 '위성류(渭城柳)'라는 단어도 없었고, 오히려 시대가 주나라로 거슬러 올라가는 '하류(河柳)'와 '서하류(西河柳)'가 많이 쓰이고 있음이 특징이다.

다섯째, 중국성경에서 히브리어 '에셀'을 번역함에 있어서, 고대 본초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정류(檉柳)'를 사용하자는 주장도 있을 수 있고, 중국 식물분류학에서 정식 명칭이 되지 못한 '수사류(垂絲柳)'를 쓰지말자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百度學術' 사이트에서 1950년 부터 2018년까지 '垂絲柳'와 '檉柳'에 관한 학술연구 논문자료수를 검색을 해 보면 2016건 : 2093건으로 나타 나타난다. 따라서 중국성경에서 에셀에 관한 번역은 '垂絲柳'로 번역하거나 '檉柳'로 번역해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여섯째, 일본성경은 『舊新約全書(1887)』에서 버드나무(やなぎ)로 번역하였던 오류를 수정하여, 『口語譯 聖書(1955)』부터 **ぎょりゅう**(檉柳)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ぎょりゅう**(檉柳)'는 자생종이나 야생종이 아니라 에도시대 도래한 외래종이라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용어 설정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일곱째, 한국고전 용례분석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한국의 *T. chinensis*는 약용 및 관상용으로 일찍부터 한반도에서 생육하였다. 그러므로 한국 성경에서 의학용어인 '檉柳' 사용하거나 혹은 문학적인 용어인 '위성류'를 사용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의학학적으로 역사성이 깊은 檉柳를 쓰자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그래도 인지도가 높은 위성류를 쓰자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위성류'라는 용어는 중국에서도 사용빈도가 극히 낮은 용어이고, 조선시대 문학하던 분들의 순박한 모화사상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용어 사용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논란이 있는 '위성류'를 사용하기 보다는 히브리어로 음역하여 '에셀나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 1) 1.서거정(徐居正, 1420-1488)의 사가집(四佳集), 2.강희맹(姜希孟

- 1424-1483)의 사숙재집(私淑齋集), 3.성현(成俔 1439-1504)의 허백당집(虛白堂集), 4.홍성민(洪聖民 1536-1594)의 졸옹집(拙翁集), 5.유몽인(柳夢寅 1559-1623)의 어우집(於于集), 6.조찬한(趙繼韓 1572-1631)의 현주집(玄洲集), 7.조희일(趙希逸 1575-1638)의 죽음집(竹陰集), 8.이식(李植 1584-1647)의 택당집(澤堂集), 9.이경여(李敬輿 1585-1657)의 백강집(白江集), 10.정두경(鄭斗卿 1597-1673)의 동명집(東溟集), 11.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송자대전(宋子大全), 12.이만부(李萬敷 1664-1732)의 식산집(息山集), 13.이시항(李時恒 1672-1736)의 화은집(和隱集), 14.어유봉(魚有鳳 1672-1744)의 기원집(杞園集), 15.권구(權榘 1672-1749)의 병곡집(屏谷集), 16.조하망(曹夏望 1682-1747)의 서주집(西州集), 17.김이만(金履萬 1683-1758)의 학고집(鶴巢集), 18.홍계영(洪啓英 1687-1705)의 관수재유고(觀水齋遺稿), 19.유익건(柳宜健 1687-1760)의 화계집(花溪集), 20.남유상(南有常 1696-1728)의 태화자고(太華子稿), 21.남유용(南有容 1698-1773)의 뇌연집(雷淵集), 22.서종화(徐宗華 1700-1748)의 약현유집(藥軒遺集), 23.이인상(李麟祥 1710-1760)의 능호집(凌壺集), 24.일성록(日省錄 1760-1910), 25.신석우(申錫愚 1805-1865)의 해장집(海藏集), 26.신광수(申光洙 1712-1775)의 석북집(石北集), 27.정범조(丁範祖 1723-1801)의 해좌집(海左集), 28.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29.박시원(朴時源 1764-1842)의 일포집(逸圃集), 30.김정희(金正喜 1786-1856)의 완당전집(阮堂全集), 31.이유원(李裕元 1814-1888)의 가오고략(嘉梧藥略), 32.김경선(金景善 1788-1853)의 연원직지(燕輦直指), 33.이규경(李圭景 1788-1863)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34.이주면(李周冕 1796-1875)의 지락와유고(至樂窩遺稿), 35.최한기(崔漢綺 1803-1877)의 농정회요(農政會要) 36.한장석(韓章錫 1832-1894)의 미산집(眉山集), 37.이창우(李昌雨 ?-?)의 수세비결(壽世秘訣), 38.의방합부(意方合部), 39.황도연(黃度淵 1808-1884)의 의종손의(醫宗損益), 40.허훈(許薰 1836-1907)의 방산집(舫山集), 41.유상운(柳尙運 1636-1707)의 약재집(約齋集), 42.신국빈(申國賓 1724-1799)의 태을암집(太乙菴集), 43.양예수(楊禮壽 ?-1597)의 의림촬요(醫林撮要)
- 주 2) 別所梅之助(1975)는 『聖書植物考』에서 檉柳를 *Tamarix Syriaca*로 동정하였지만 그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
- 주 3) “아브라함은 브에르 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한 하느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불렀다”(창세 21.33).
- 주 4) “사울이 다윗과 그 부하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사울은 기브야의 높은 지대에 있는 에셀 나무 아래에서 손에 창을 들고 앉아 있었는데, 모든 신하가 그 주변에 둘러서 있었다”(1사무 22.6).
- 주 5) 1역대 10.12에서는 사울의 유골이 묻힌 나무를 柃(향엽나무)로 기록하고 있다.
- 주 6) “그다음 그들은 그 뼈를 추려 야베스에 있는 에셀 나무 밑에 묻고, 이래 동안 단식하였다”(1사무 31.13).
- 주 7) 사울과 그의 동료들(“모든 신하가 그 주변에 둘러서 있었다”[1사무 22.6])이 앉아 있던 에셀 나무와 “드보라가 에프라임 산악 지방의 라마와 베텔 사이에 있는 ‘드보라 야자나무’ 밑에 앉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재판을 받으러 그에게 올라가곤 하였다”(판관 4.5).
- 주 8) 정(檉柳)은 하류(河柳)다.
- 주 9) 柳有楊柳。有杞柳。有檉柳。說文。楊。薄柳也。從木易聲。檉
- 주 10) 《本草綱目》。檉。柳類。名檉柳。一名雨師。以將雨起氣。故名之以雨師也
- 주 11) 味苦寒。主風水黃膽。面熱。黑。一名柳絮。葉主馬疥癩創 實主潰癰。逐膿血。子汁療渴。生川澤。《名醫》曰 生琅邪案。《名醫》曰 生琅邪案 《說文》云柳小楊也 檉河柳也。楊木也。《爾雅》檉河柳。郭璞云 今河旁赤莖小楊。又旄澤柳。郭璞云 生澤中者。又楊。蒲柳。郭璞云 可以爲箭 《左傳》所謂董澤之蒲。《毛詩》云 無折我樹杞。

《傳》云 杞木名也。陸璣云 蒲柳屬也。

- 주 12) 학명 기준으로 중국식물지와 국가표준식물목록을 비교하여 명칭을 조정하였음.
- 주 13) 중국에서 선행된 정류(檉柳)의 연대와 명칭을 고증한 논문[12]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有檉, 殷檉”라는 용어에서 차이가 있다.
- 주 14) 柳(류)는 버드나무 류(柳)와 같은 글자이다.
- 주 15) 나무이름에 대한 띄어쓰기 : 동식물의 이름이나 분류학상의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다. 동식물명이 둘 이상의 단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로 보아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다.

## REFERENCES

- [1] Nogah Hareuveni(1984). Tree and Shrub in Our Biblical Heritage. Helen Frenkley(Translator). Neot Kedumim.
- [2] Kim, Y. S.(2017). A study on the plant names in the Bible: its Values and Perspectives in Biblical Theology for the Translation and Exegesis. Doctoral thesis of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 [3] Kim, T. W.(2002). The Woody Plants of Korea, Seoul: Kyo-Hak Pub.
- [4] 龐新安, 姜喜, 王建勛, 楊明祿(2008). 中國檉柳屬植物研究進展. 塔里木大學學報, 20(4): 84-90.
- [5] Wilkinson A.(1998). The Garden in Ancient Egy. The Rubicon Press.
- [6] Choi, J. H., Yoon, S. J. and Go, J. H.(2015). Plants in garden history. Goyang: Daega.
- [7] Choi, M. B.(1997). Study on the Unjoru Garden of Gury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15(2): 147-154.
- [8] Shin, S. S.(1999). A Study on the Trend of Construct Thought in the Gurye Unjoru(Traditional Private Upper Classed Hous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17(2): 69-77.
- [9] Min, B. M., Yi, D. H., Lee, H. W. and Choi, J. I.(2005). Characteristics of *Tamarix chinensis* Populatin in Shiwa Lake. The Korean journal of ecology. 28(5): 327-333.
- [10] Park, C. M. and Kim, Y. K.(2006). A Study on Propagation and Growth Characteristics of *Tamarix chinensis* for Development of Plant Using in Coast Environmental Forest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Landscape Architecture. 34(3): 79-90.
- [11] 張元明, 潘伯榮, 尹林克, 楊維康, 張道遠(2001). 檉柳科(Tamaricaceae)植物的研究歷史. 西北植物學報, 2001(4).
- [12] 劉會, 姜海榮, 劉洪超, 周鳳琴(2009). 中藥西河柳的本草考証. 中藥材, 32(-): 1151-1154.
- [13] 張道遠, 潘伯榮, 尹林克(2003). 檉柳科檉柳屬的植物地理研究. 雲南植物研究. 25(4): 415-427.
- [14] Zohary, M.(1982). Plants of the Bib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5] Hepper, F.N.(1998). Planting A Bible Garden. Baker Book House.
- [16] Hepper, F.N.(1992). Baker Encyclopedia of Bible Plants: Flowers and Trees, Fruit and Vegetables, Ecology. Baker Book House.
- [17] Gaskin, J. F. and Schaal, B. A.(2002). Hybrid Tamarix widespread in U.S. invasion and undetected in native Asian range. Proc. Natl. Acad. Sci. U.S.A. 99(-): 11256 - 11259.
- [18] Maldonado G. N., López, M. J. and Caudullo, G.(2016). Tamarix - tamarisks in Europe: distribution, habitat, usage and threats. European Atlas of Forest Tree Species.

- [19] Flora of North America :  
[http://www.efloras.org/flora\\_page.aspx?flora\\_id=1](http://www.efloras.org/flora_page.aspx?flora_id=1)
- [20] Wild flowers of Israel : <http://www.wildflowers.co.il> Flora of Israel Online(prof. Avinoam Danin) : [https://flora.org.il/en/plants/Flowers in Israel](https://flora.org.il/en/plants/Flowers%20in%20Israel) : [http://www.flowersinIsrael.com/Neot Kedumim Park](http://www.flowersinIsrael.com/Neot%20Kedumim%20Park) : <http://www.neot-kedumim.org.il>
- [21] Kim, Y. S.(2018). An Investigation of Local Naming Issue of *Phoenix dactylifera*.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6(1): 34-44.
- [22] Kim, Y. S. and Ahn, G. B.(2018). An Investigation of Local Naming Issue of *Phoenix dactylifera*.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5(2): 69-76.
- [23] Kim, J. M.(1986). Plants of the Bible. Paju: Bojinjae.
- [24] Ryu, M.(2014). Open Bible Plant story. Seoul: Duranno.
- [25] Jung, J. S.(2013). Plants of the Bible by Jung Jung-Sook. Christian Museum.
- [26] Kwon, S. D.(2015). Each According to Its Kind: Plants and Trees in the Bible. Korean Bible Society.
- [27] Lee, C. B.(1994). Plants of the Bible. Seoul: Hyangmunsa.
- [28] 馬殊曼, 拉沙(1822). 馬殊曼譯本 新舊遺詔全書. 印度塞蘭坡差會出版社.
- [29] 馬禮遜, 米憐(1823). 馬禮遜米憐譯本 神天聖書. 大英聖書公會.
- [30] 郭實獵, 麥都思, 裨治文, 馬儒翰(1840). 四人小組譯本 舊遺詔聖書. 由新嘉坡堅夏書院.
- [31] 委辦譯本委員會(1855). 新舊約全書. 大英聖書公會.
- [32] 裨治文, 克陟存(1863). 裨治文克陟存譯本 舊新約聖書. 美國聖經會.
- [33] 施約瑟(1913). 新舊約全書. 京都美華書院.
- [34] 文理和合譯本委員會(1919). 文理和合譯本. 新舊約全書.
- [35] 雷永明(1968). 思高譯本 新舊約全書. 香港思高聖經學會.
- [36] 許牧世, 駱維仁, 周聯華, 王成章, 焦明譯(1995). 現代中文譯本 聖經. 聯合聖經公會.
- [37] 裨治文, 克陟存 譯本(1863). 舊約全書 : 漢譯聖書. 美華書局.
- [38]ブリッジマン, カルバートソン and 松山高吉(1885). 訓点舊約全書. 米國聖書會社.
- [39] 聖書常置委員會(1904). 明治元譯 旧新約聖書. 米國聖書會社.
- [40] 旧約改譯委員會(1955). 口語譯 旧約聖書. 日本聖書協會.
- [41] 共同譯聖書實行委員會(1987). 新共同譯 聖書. 日本聖書協會.
- [42] 鄭泰容, 趙容圭(1926). 鮮漢文 貫珠 聖經全書. 大英聖書公會.
- [43] Bible Translation Commission(1930). The Korean Bible. Great Britain Bible Society.
- [44] Chosun Kyung Sung Bible Society(1938). The Holy Bible Korean Revised Version. Chosun Kyung Sung Bible Society.
- [45] Korean Bible Society(1977). The Holy Bible Common Translation. Korean Bible Society.
- [46] Korean Bible Society(1993). The Holy Bible New Korean Standard Version. Korean Bible Society.
- [47] Korean Bible Society(1998). The Holy Bible New Korean Revised Version. Korean Bible Society.
- [48] The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Biblical Commission(2005). The Holy Bible. Catholic Conference of Korea.
- [49] Korean Classical General DB : <http://db.itkc.or.kr>
- [50] Classical DB of oriental medicine : <https://medicclassics.kr/>
- [51] Korean History DB : <http://db.history.go.kr/>
- [52] 中國知网 : <http://www.cnki.net/>
- [53] 百度學術 : <https://xueshu.baidu.com/>
- [54] Lee, C. B.(1985). Illustrated flora of Korea, Hyangmunsa.
- [55] Flora of China : <http://flora.huh.harvard.edu/china/>
- [56] Lee, S. R.(2016). History, population structure and evolution of invasive *Tamarix* L. in the Southwestern U.S. Doctor's thesis of Texas Tech University.
- [57] Gaskin J. F.(2018). Tamaricaceae. FNA. 6(-): 1
- [58] Yang, K. S.(1983). A Consideration of Erya(爾雅). Journal of Eastern Philosophy, 4(-): 69-84.
- [59] Sheen, Y. I. and Park, C. G.(1989). A Study of Medicine in the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3(-): 444-500.
- [60] 許浚(1610). 東醫寶鑑. 內醫院.
- [61] Lee, W. T.(2005). The Origin of the Names of Plant in Korea. Seoul: Ilchokak. : 425.
- [62] BRIS: Bio Resource Information Service : <https://www.bris.go.kr/portal/main/main.do?siteGb=M>
- [63] 森爲三(1922). 朝鮮植物名彙. 朝鮮總督府學務局.
- [64] 鄭台鉉(1937). 朝鮮植物鄉名集. 朝鮮博物研究會.
- [65] Yun, J. Y. and Son, Y. H.(2014). A Study on Cultural Interpretation of the Plants in "The Book of Songs".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2(3): 96-109.
- [66] Oh, C. Y. and Yun, C. R.(2008). A Study of the 『Shennong Bencaojing(神農本草經)』 and 『Herbal Literature(本草書)』 represented in the 『Compendium of Materia Medica(本草綱目)』,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1(3): 273-283.
- [67] 中國植物志 : <http://frps.eflora.cn/search>
- [68] Weblio辭書 : <https://www.weblio.jp/>

원 고 접 수 일: 2019년 1월 13일  
 심 사 일: 2019년 3월 5일 (1차)  
 : 2019년 3월 11일 (2차)  
 계 재 확 정 일: 2019년 3월 11일  
 4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